보도자료

일반시민 3명 중 2명 "분리된 KTX 와 SRT 통합 찬성"
이용자 역 접근성으로 고속철도 선택 다수, 경쟁체제도입 효과 미비

일반시만 절반 이상이 분리 운영중인 KTX 와 SRT 통합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녹색교통운동은 여론조사기관인 더 리서치에 의뢰하여 지난 3월 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의 고속철도 통합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66.2%가 통합운영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통합운영에 반대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18.4%, 15.4%에 그쳤다.

KTX나 SRT를 주로 이용하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 KTX 와 SRT 모두 출발지/도착지 근처에 기차역이 있어서가 각각 60.5%, 64.5%로 나타나 대부분의 이용자가 요금과 서비스 보다는 역 접근성을 고속철도 선택에 큰 이유로 꼽았다.

주로 이용하는 고속철도로는 KTX 가 59.1%, SRT가 18.4%로 나타났으며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하는 응답은 22.5%로 조사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71.4%가 고속철도 이용경험이 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이용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녹색교통운동 등이 참여하는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SRT) 운영사 SR의 통합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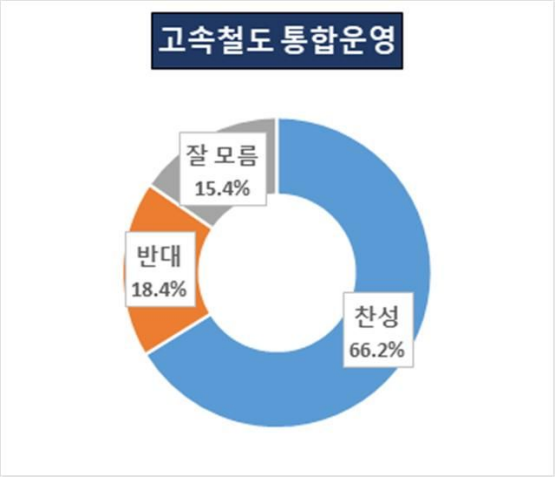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공공성을 강조하며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코레일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Networks for Green Transport

03969.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39 나루4층 Tel.(02)744-4855 Fax.(02)744-4844

홈페이지 http://www.greentransport.org E-Mail : 1@greentransport.org

담당: 김광일 협동사무처장 (010-6343-6050)


고속철도 통합운영
잘 모름
15.4%
반대
18.4%
찬성
66.2%

KTX 이용 이유
기타
11.7%
좌석 구하기가 쉬워서
1.5%
고객서비스 품질이 우수
2.6%
열차 내부가 넓고 쾌적해서
4.2%
열차 운행 횟수가 많아서
15.8%
철도요금이 상대적 저렴해서
3.7%
출발지/도착지 근처 기차역이 있어서
60.5%

SRT 이용 이유
기타
3.0%
고객서비스 품질이 우수
0.0%
열차 내부가 넓고 쾌적해서
2.3%
열차 운행 횟수가 많아서
2.2%
철도요금이 상대적 저렴해서
28.0%
출발지/도착지 근처 기차역이 있어서
64.5%